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4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김성칠 산업경제정책과장, 남명우 서기관(2110-5112)		

지경부 장관, 전경련과 흔들림없는 동반성장 다짐

-지경부 장관, 대기업 오너의 직접적인 관심제고를 전경련 회장에 요청-

4.3일(화) 오후 2시 리츠칼튼 호텔에서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만나 동반성장을 중심으로, 反 기업 정서 확산방지, 장시간 근로개선 문제 등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동반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건이 급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적한 동반성장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계의 적극적 협력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양(兩) 기관의 수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동반성장 의지가 퇴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홍 장관은 동반성장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직접적인 관심 제고와 인식 전환이 필수**라고 누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경련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실천 모델인 '성과공유제'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동반성장의 선도자로서, **'성과공유제' 확산에 전경련을 비롯한 우리 경제계 전체가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경련은 4월중 시행되는 '성과공유 확인제'에 더 많은 대기업들이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이들을 모아 5월중에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그간 경제계가 약속한 동반성장 재원 조성과 대기업의 이행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을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중 대기업의 동반성장 사례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한국형 동반성장모델 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4월말 발표 예정인 '동반성장지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오갔다. 허 회장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을 4등급으로 나누고 모두 발표키로 함에 따라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앞으로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될 때 우수한 등급을 받은 대기업들을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과도한 反 기업 정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등 대기업이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골목상권 보호와 사회적 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상황인식을 위해, 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사업철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육시설 건립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공헌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월중에 기업의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이슈인 장시간 근로개선에 대해서는 허 회장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 기업의 부담과 현장 수용성을 고려치 않고 휴일근로를 법

제화 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장관도 이는 노사간 합의 바탕으로 산업계가 준비된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도, 대기업의 근로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전경련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요청했다.

끝으로, 홍장관은 일본의 경단련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지진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발휘한 리더십을 거론했다. 경제계의 맏형 격인 전경련에 거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경련이 국민, 기업, 정부와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고, 우리경제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아젠다 설정자(Agenda Setter)로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사례>
- 일본 대지진 후 경단련은 기업에 '자주적 절전대책 수립'을 촉구, 업종별·기업별로 의견을 수렴·조정하여 정부에 대책을 제의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였음

참고 **간담회 개요**

○ 시간 : 2012년 4월 3일(火) 14:00~14:30 (30분간)

○ 장소 : 강남 리츠칼튼호텔 1층 비즈니스센터 (제1회의실)

○ 참석 : (지경부) 장관, 대변인, 산업경제정책국장
(전경련) 회장, 부회장, 산업본부장, 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